



정민규/정수정선교사

TEL: 82-10-7223-9487 E-mail: j_m_kyu@hotmail.com

GP선교회 : 서울 송파구 문정동 77-3번지 TEL: 02-443-0883

후원계좌 : 하나은행 990 090819 170 정민규, 정수정

2026년 3월

“그리스도의 계절! 나의 소망!”

세상의 유일한 빛이 되는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와 가정에 문안을 드립니다.

2026년을 맞이한 지도 벌써 3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교회 사역과 가정에 몇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역 소식은 먼저,

작년까지 정민규선교사에게 제자양육을 받던 성도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로 총 3
그룹을 꾸려서 제자양육을 시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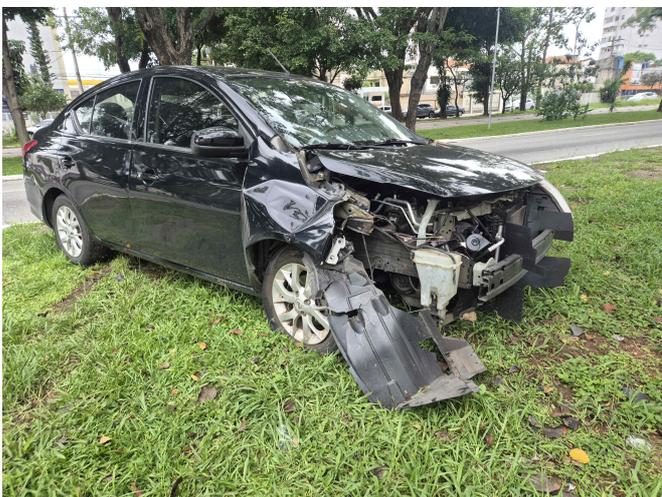
이제 이 중에서 또 제자들이 서고, 그들은 다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제자양육을 시
작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정민규선교사는 제자양육에 참석하는 사람들과 이미 양육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제자모임을 한 달에 한 번, 맨 마지막 주에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에 소식은 먼저, 저희 딸 소연이가 대학 진학을 위해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소연이는 올해 동안은 대학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내년 2027년 학기로 1년 늦게 대학에 입학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소식은 안타까운 소식인데, 자동차 사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운전하던 정민규 선교사 역시 다친 곳은 전혀 없지만, 차량은 폐차되었습니다.

기도제목

1. 브라질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 주시도록.
2. 제자양육을 받은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을 양육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충만함이 있도록, 또한 이들이 교회 안에서만 피양육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이웃에게, 그리고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양육할 수 있도록
3. 제자양육하는 문화를 교회에 정착시켜야 할 숙제가 남았는데 저희 가정에게 성령의 충만한 지혜와 능력이 있도록
4. 지금 고환율과 높은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가정의 물질적 필요를 채워 주시도록
5. 소연이의 대학 진로와 또 남은 창연이와 태연이의 진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도록

정민규/정수정 선교사(소연/창연/태연)

연락처 : j_m_kyu@hotmail.com 또는 <http://www.facebook.com/mingyu.jeong2>